

온 인류는 한 몸이고로 우리에게 너와 내가 없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 희열의 세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숨어 있어

인간에게는 생각의 범주가 있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범주 내에서만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 범주 안에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희락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죽지 않는 세계,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 몸이 날아다니던 세계에서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피가 인간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고로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피가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 바로 그러한 희열의 세계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작용을 환상이다,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인간의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한정된 좁은 틀에서 벗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의 범주가 무한대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범주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고로 지금까지 사망의 범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의 범주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인간이 감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려면 '나'라는 의식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해주시는 층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내내 한도 끝도 없이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조차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이고 일단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서면 시간의 흐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초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맡긴 바가 되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의 초점이 '나'라고 하는 곳에 쏠리게 되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은혜 연결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모두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개는 개의 생각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사람인 '나'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세계에서만 존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 마음의 한계가 없었으며, 우주의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제약되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완전한 자유자재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곳에 이미 그 몸이 날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은 총화된 일체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해서 6천 년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 각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승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분신으로 쪼개져 오늘날의 세계 인류가 되었습니다. 각기 여러 나라, 여러 인종으로 쪼개져 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 각자 각자가 따로 동떨어진 개체로서



메시아(מָשִׁיחַ, Messiah) 조희성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합의 영이므로 열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되고 수억 천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가 되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세계에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천국 안의 사람이 되려니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안의 사람이 되는 자격입니다.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논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천국이 사람의 집을 말한다면 사람더러 굳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사람의 집이 천국이라고 할 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경과 성경에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논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었던고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성경에는 찢값으로 말미암아 죽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갔다가 되는 것이다.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입니다. 고로 구세주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소멸하는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비결도 논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이 피가 씩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찢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찢지 않는고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구 땅 위에는 하나님이 되는 비결,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간자 구세주의 눈에서 이슬성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만 하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 얻는다는 아름다운 말만 하였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고로 서론만 논했고 본론과 결론을 논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본론과 결론을 논하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론과 결론을 논하는 것을 보아서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되는 방법과 길과 이치를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죽지 않는 비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가 구세주입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의식이 사라져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생각이 그릇된 의식('나'라는 존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고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신(神)이요, 한 피이고로 우리에게 너와 내가 없습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의식이 사라지는 날 50억으로 갈가리 찢어진 인생은 다시 한 신(神)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천 년간 갈라졌던 이산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말로만 근사하게 아

름다운 공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흠어져 있는 모든 사상과 법칙을 통일하고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체계로 문치게 하는 역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불교는 그 운(運)이 3,000년으로써 끝나고 이제는 생미륵불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유교에서는 정도령이 출현하기를 희구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구세주 이간자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동일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주인공이 나타나고로 유불선(儒佛仙)이 다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슬성신'을 부여주는 자가 구세주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호 14:5) 오늘날 이 사람이 집회시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이슬이 이 사람의 눈에서 입에서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6년째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가 이곳 한국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영생을 주는 길이요, 이 사람은 영생의 새 학문을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점점 영생활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좌정함으로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점점 영생활 수 있는 마음과 몸으로 변화를 입고 있으며 늙은이가 젊어지고 꼭 죽을 사람이 다시 사는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 12월 25일 말씀

公約5：南北戰爭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 - 和解ムード造成

南北の交流が始まる和解ムード造成

勝利者・曹熙星先生のお話どおり金大中候補が大統領に當選されました。南北戦争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爲の勝利者・曹熙星先生の計畫がみ旨の通りうまく進んで行く過程なのです。

金大中大統領の政府は1998年から2003年までの南北關係を相當な境地まで進行させました。梗塞された50年間の對北關係を極力變化させました。

太陽政策を以て北朝鮮とかなり近づいて2000年6月15日には北朝鮮を訪れて南北首腦會談を和氣あいあいと進行させながら「6.15南北首腦會談」を開いて「南北共同聲明」を出す成果を上げました。

牛千びきを北朝鮮に送ることを始めとして、歴史的な「金剛山」觀光が始まり、經濟・文化などの南北交流が活發に進行しました。

金大中政府の太陽政策は朝鮮半島の平和にも貢獻し、金泳三政權で韓國に不信を持っていた米國、ロシア、中國、日本の4強國から確固たる支持を得て、結局、世界人が羨むノーベル平和賞まで受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

2000年6月、金大中大統領の歴史的な北朝鮮訪

問の道を見守っていた國民は統一はなるという思いを熱く燃きつけたことでした。

北朝鮮のシュアン空港では二人の最高首腦が熱く抱き合った場面は國民を熱狂させました。そして、二人の首腦は「高麗連邦制」という體制にも合意もしました。直ちに南北統一になると考える程でした。

6.15宣言で南北兩側は京義（キョンウイ）線と東海（トンヘ）線の鐵道、道路連結のための措置に合意して2003年には道路の通行を2007年には京義（キョンウイ）線鐵道運行を始めました。また、南北離散家族の對面を實現させました。

勝利者の曹熙星先生はこのように韓國と北朝鮮の戦争が起こらぬようにする様々な布石を置きました。

このように勝利者の曹熙星先生の努力で今まで韓國と北朝鮮の戦争が起らないのです。

今もなお南北戦争を起らぬようにするという公約がそのまま守られていることです。このような勝利者の曹熙星先生の能力を、500年前の昔、格庵南師古先生は次のように予言して置きました。

聖神劍名掃腥塵 無戰爭天下和

聖神の劍の名前は生臭い塵のような世の中をはき捨てて戦争がない天下に和合するようにする。(格庵遺錄の出將論)

結論-曹熙星先生の前に出てきてこそ生きる事が出来る

私たち檀君民族はハナニムの直系子孫である天孫民族です。

この民族をして救世眞人が出現して韓國を全世界の中心國、指導國に作るとなハナニムがおっしゃいました。天下の運が韓國に戻って来る。

世界列邦の宗主國というなれば親の國になるから、これは王の中の王がいっしょやるからです。予言者達がいうのに「甘露海印を持って出られ自由自在に用いられる方が出られる」と數千年前から予言した通り天運が韓國に戻って来る。

甘露海印を思いのままに用いられる勝たれたハナニムが現れ、朝鮮が世界の中心國になるんだと。'このような感動的な予言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も救世眞人、曹熙星先生が韓國に出現されたからです。

しかし、その恩恵を知らず、この國の國民が救世眞人を排斥して普光の道、肉身を解脫してハナニムの神に原始反復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われらの檀君民族をとても愛されたから、曹熙星先生が5大公約を宣布なさったのもわれらの民族を先に悟らせる爲でした。

しかし、この民族は救世眞人をあらゆる汚い汚名を着せて排斥して冷たくしてしまいました。"天よ、聞け、地よ、耳を傾けよ、主が次のように語られたから、「わたしは子を養い育てた、しかし彼らはわたしにぞむいた。牛はその飼主を知り、ろばはその主人のまぐさおけを知る。しかし、イスラエルは知らず、わが民は悟らない」。ああ、罪深い國びと、不義を負う民、惡をなす者のすえ、墮落せる子らよ、彼らは主を捨て、...あなたがたは、どうして重ね重ねぞむいて、なおも打たれようとするのか。(イザヤ1:1-5)"

これから大變な災いが来ると言われます。

「天地が振動する火雷が地に落ちて三災八亂が共に起きる時を知るのか。3年の凶年と2年の怪疾とはやり病、名を知らない天疾で朝に生きていたが、夕方に死ぬから十家に一家だけが残る」(格菴遺錄

の歌辭總論) '時が来れば病氣に死ぬ人が汚水に押し流されるようだろう。横たわっても死んで、座っても死んで、道を通りながらも死んで、死んで生き返る方法が無いから醫通を習って置け' このように病氣は藥で治そうとする人が先に死ぬ(天地開闢經) のようにこわい災いを免れることが出来る唯一の處方はきつと一つがあります。

"當服奄麻常誦呪で萬怪皆消海印"

「當然に母に従順してつねに滅魔經の祈禱文を暗記することによって全ての病氣から免れることが出来る甘露、海印の能力である」と言いました。

この時は、曹熙星先生は「百藥が無効で、人間の醫術も不可能で、ひたすら救世眞人、曹熙星先生の前に出れば生きることが出来る」と話されました。

また、全世界的に廣がる三災八亂に無防備で遭った人びとが韓國の救世眞人、曹熙星先生の所に行けば生き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こと聞いて金銀寶貨を持って一夜に千隻の船が韓國におし寄せて救世眞人、曹熙星先生が祝福なさった漢江水を飲めば生き返るから先を争って積んで行くで歌辭總論に予言しています。*